

네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사역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말씀 드립니다.

1. 학교 건물을 한 층 더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3층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땅 6백평을 빌렸습니다. (돼지와 닭 농장 그리고 채소를 심어 학생들을 섬길 것입니다 자립 할 수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해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주님께 간구해 봅니다).
3. 마스크 천 장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4. 코로나로 중단된 1학기 과정을 1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낼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1. 학생들 1학기 수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건물 3층 올리는데 필요한 물질이 주님의 손길로 채워질 수 있도록.
3. 농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김성운 & 오종향선교사.

방글라데시 이야기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분의 몸된 38위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길 두손모아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온지도 벌써 거의 4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온 고습과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이 되어 나라가 봉쇄되는 실정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두손모아 주심으로 고온 고습과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언어도 많은 진보가 있었으며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요즘은 500명 좌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하나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처질때가 있지만 여러분의 두손모아 주심으로 늘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센 환우촌을 갔다왔습니다. 첫 환우였는데 구더기 수십마리가 발가락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감동과 이곳의 체험을 통하여 이곳에 한센환우를 섬기는 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좋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도 제목>

1. 그분이 주신 큰 꿈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지역의 한센환우 섬김) 을 이루는데 베이스 캠프 역할.
2.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발급되기를 위해.
3. 지난 10일 친구 사님 부부가 추방되었는데 특수지역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센 환우도 대부분 특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
4. 동역할 분들이 이단체를 통하여 장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위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긴급 두손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강OO & 현OO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췌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팔 이예신 선교사- 선교사님께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암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6. 강명철 선교사 -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7.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8. 김에스더 선교사 남편 김승호 목사님이 주일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심장 혈관 3개중 2개는 완전히 막혔고 1개도 5프로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염증수치가 높고 폐에 물이 자꾸 차 수술 빨리 하지 않으면 심폐소생까지 갈 위험도가 높고 외과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수술 자체가 위험도가 너무 높아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 광선으로 염증 수치 빨리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11월 14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케냐 이야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간 듯 합니다. 케냐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모든 초점이 선거에 맞추어져 있고, 그 때문인지 요즘은 코로나도, 백신도 조용합니다. 지난주에는 2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코로나보다도 가뭄이 더욱 걱정입니다. 보통 일년에 3번 옥수수를 심고 거두는데 올해는 한번도 제대로 된 추수를 하지 못해서 다들 힘들어 하는 가운데 날씨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2학기가 시작되었고, 내년 3월이 되어야 2021학년의 모든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만3세 어린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200여명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2년 전에 학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육청에 넣어 놓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면서 담당자와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신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한국인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케냐사람이 되어 ‘천천히’,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의 초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학교가 좋은 소문이 나서 교육청에 가면 직원들이 학교 칭찬을 하고, 한번 와보고 싶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학교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달에는 킬리피 은혜교회 헌당감사예배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감사하다고 염소, 오리, 코코넛, 바나나 등을 직접 가져와 저희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휴교회로 있으면서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벽을 메운 흙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대로 또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성전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오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신학교는 내년 1월에 다시 문을 열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컴파운드 내에 채플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교생 또는 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저희들의 기도처소가 될 것 입니다. 또한 교단 산하 교회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곳을 선정하여 학교 건축이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시골 교회들은 재정적 자립을 이유로, 또한 가까이 학교가 없어 배울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교회에서 유치원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집에서, 나무 밑에서, 예배당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건축현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고 계십니다. 학교가 잘 건축되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잘 교육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모두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아프리카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인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사랑의 응원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단단해지며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황광식, 원지혜, 주원, 주이, 주엘 선교사

<기도제목>

1. 성령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게 하소서.
2. 내년에 신학교가 문을 열고 신학생들이 주의 신실한 종으로 잘 훈련받도록,
3. 초등학교 등록 및 필요한 절차들이 잘 진행되고 해결되도록,
4. 채플과 학교(유치원)의 건축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5. 선교사 가정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샬롬~! ^^ 할렐루야!

저는 지난 9월 7일(화) 한국을 출국하여, 9월 8일(수) 몰도바에 무사히 잘 도착하였습니다. 현재는 OM Moldova 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약 3개월간 언어를 배우는 시간과 비자를 통한 거주증을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영어와 루마니아어를 배우고 익히고 있으며, 몰도바와 OM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부족하지만 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입국한 이후 저는 거주증 발급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 온 서류 등을 OM 변호사를 통한 신청을 준비하였고, 10월 초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옆 나라인 우크라이나 오데사란 도시를 방문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로 10월 14일(목)에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급받은 비자를 제출하면 거주증 발급을 위한 기본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개월의 언어 훈련과 거주증 발급의 시간을 마치게 되면, 현지 교회 개척팀에 합류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지 개척 사역은 몰도바 북쪽에 있는 소로카(Soroca)란 지역에서 사역하는 팀에 합류하게 될 예정으로 언어를 공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소식)

현재 몰도바 코로나 상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1,407명, 사망자 35명이 추가되었으며, 코로나 확진자 313,849명이고, 사망자는 7,172명입니다. 현지에 와서 확인해보니 몰도바의 백신접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상가나 관공서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거리를 다닐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몰도바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성보다 위험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몰도바에도 많은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교사 소식)

저는 몰도바에 입국한 이후, 몰도바 OM에서 제공해주는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고 기도회나 회의에 참석하며 부족하지만 OM 사람들과 교제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말로 소통하며 표현하지는 못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눈과 가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몰도바를 나가기 전에 제가 거주하던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짐과 집기 등을 제 차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차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임시 숙소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 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점검과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은 거주를 위한 서류 진행이 된 다음 진행이 가능하기에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기도 했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말씀의 부족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께서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 등 부족한 것 투성이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용기를 내어 선포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년 초에 M.div과정 진학을 목표로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재정도 부족한 지식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 초까지 영어와 루마니아어에 집중하며 사역을 위한 기본 언어가 준비된다면 공부할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부족한 지식도 채워주실 것이고,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학교는 ‘GMU’에서 공부하는 것과 현지에서 공부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란 이 고백들이 제 삶을 통하여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나아갑시다!

<기도 제목>

1.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걷는 제가 될 수 있도록.
2. 언어(영어, 루마니아어)를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가 잘 들려지고, 잘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4. 부족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실 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5. 몰도바에 있는 차량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아 부품교체와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잘 점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6. 거주증을 발급받기 위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 좋은 동역자와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8.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학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시간의 준비를 위해서)
9. 코로나로부터 몰도바를 보호해주시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 정석영 선교사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씀이 나온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로 “주, 하나님, 야훼”의 의미로 쓰여진다. 좀 더 의역하면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아도나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야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창15:2)”의 장면에서 처음 “아도나이”가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과의 주종관계에서 야훼를 자신의 주로 믿고 따르는 고백이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이신 아도나이”(수3:11,13)이심을 선포하였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며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말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도나이는 창조주로, 천지만물의 주관자로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주종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창24:9,10,출21:4-6, 삿19:11).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발견케 된다. 마치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와 같다. 토기는 주인이 하고픈 대로 사용된다. 바로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이 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점을 우리는 잊어서도, 놓쳐서도 아니 된다.

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주인으로 피조물인 종에 대해 항상 지켜줄 책임도 동반된다(시143:2,3,렘46:10,눅12:22,요13:1-3, 빌4:19).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이런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종은 아니어도 피조물이라는 신분은 지속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창조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도나이”를 “나의 주”로 믿고 있는 우리이다. 이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나의 주 아도나이(אדוני)- 주, 하나님: 야훼)께서 온 우주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무조건 따르는 삶으로 어떤 역경, 환난, 환경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나의 아도나이(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맡기는 삶인 것이다.

여기에는 주 하나님께 변명도, 이유도 있을 수 없는 순종의 삶이 있을 뿐이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가? 이리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삶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주인을 따를 뿐이다. 이를 벗어나면 버림을 받게 마련이다. 우리는 욕과 요셉의 삶에서,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이를 배워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살았던 것이다. 욕은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요셉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환난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비록 환난을 당하나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환난과 로마제국시대의 환난기에서 이롭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다. 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들과 함께하시어 승리케 인도 하시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실체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픈 일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동반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주가 원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기에 나의 의도, 나의바램과는 거리가 먼, 아니 나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같이 살던 것,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구별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살상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주 하나님(아도나이)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를 다 내려놓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키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돌아가야 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며 나의 주 하나님만을 좇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에 그렇다. 이것을 벗어날 자는 없다. 진정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아도나이)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고 당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김대규 장로